

Market Trends of Plastic Packaging Material in Indonesia

##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포장재의 시장 동향

### Writer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Contents

- I. 서론
- II. 시장 규모 및 동향
- III. 최근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 IV.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 V.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VI. 유통구조
- VII. 관세율(일반 관세율, 한국산 제품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등
- VIII. 결론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 I. 서론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의 제품은 HS Code 391990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상위 및 하위 분류체계는 [표 1]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HS Code 최대 자리 수는 8자리이며, 8자리 코드까지 알아야 관세율, 관련 인증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 II. 시장 규모 및 동향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산업은 최근 자동차, 건축, 전기전자, 보건의료, 섬유 봉제,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협회 관계자(INAPLAS)는 국내 플라스틱 산업이 2018년에 전년에 비해 5.4~5.5% 가량 성장해 약 29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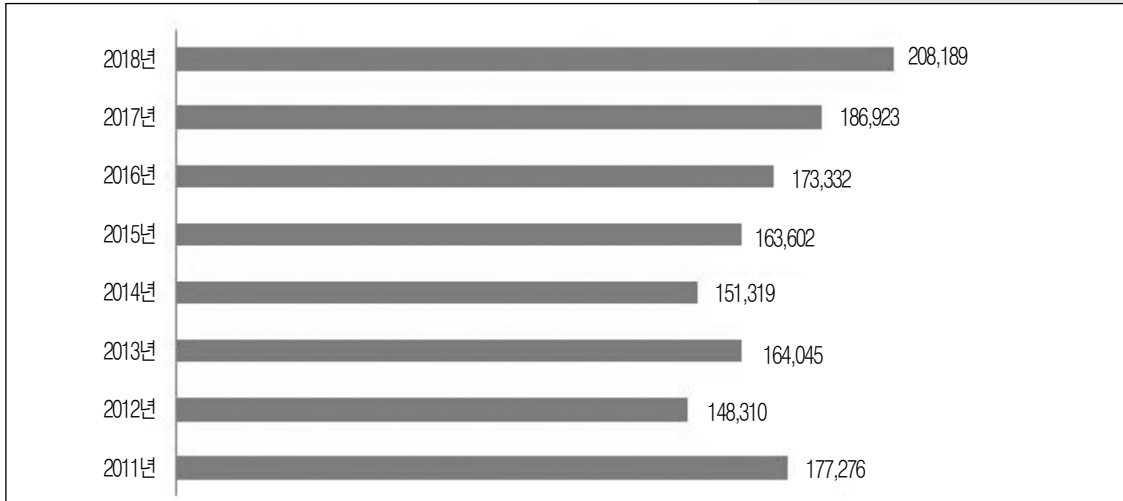
[표 1]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의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제품 설명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포일(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음)
3919.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포일(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기타
3919.90.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9.90.20	경화 단백질의 것
3919.90.91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19.90.92	가산 중합 제품의 것 : 응결 또는 전위 중합 제품의 것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 및 가소화 한 기타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
3919.90.99	기타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대한민국 관세청]

[그림 1]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 동향 및 규모

(단위 : 10억 루피아)



[자료원 : 유로모니터]

주 1 : 2018년 7월 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 환율, 1달러=14,322루피아

주2 : 2018년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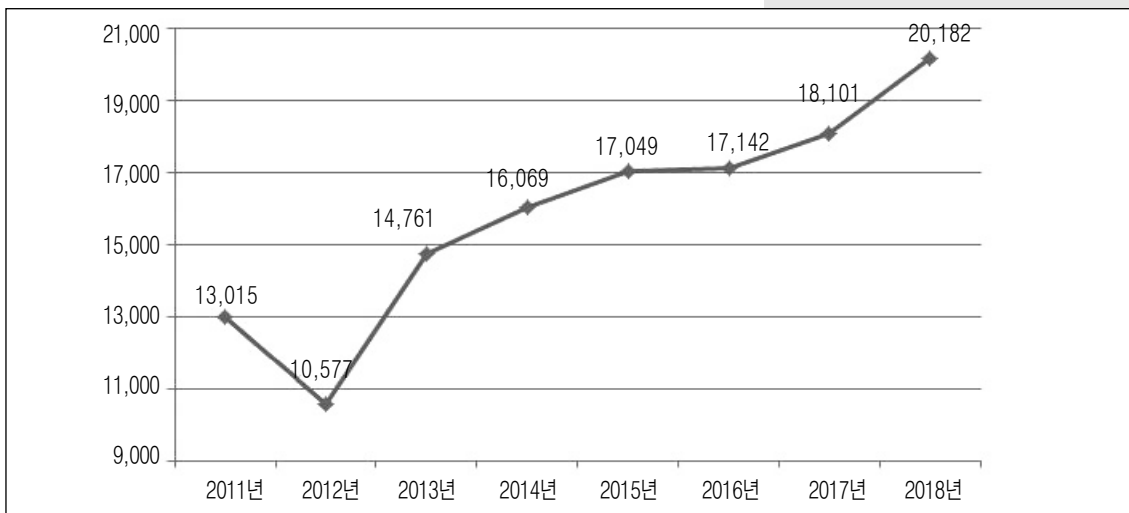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내수시  
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밝혔다.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 플  
라스틱시장 규모가 2013년까  
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해 2017년 플라스틱 시장 규모  
는 186조 9,230억 루피아(약

[그림 2]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튜브 시장 동향 및 규모

(단위 : 10억 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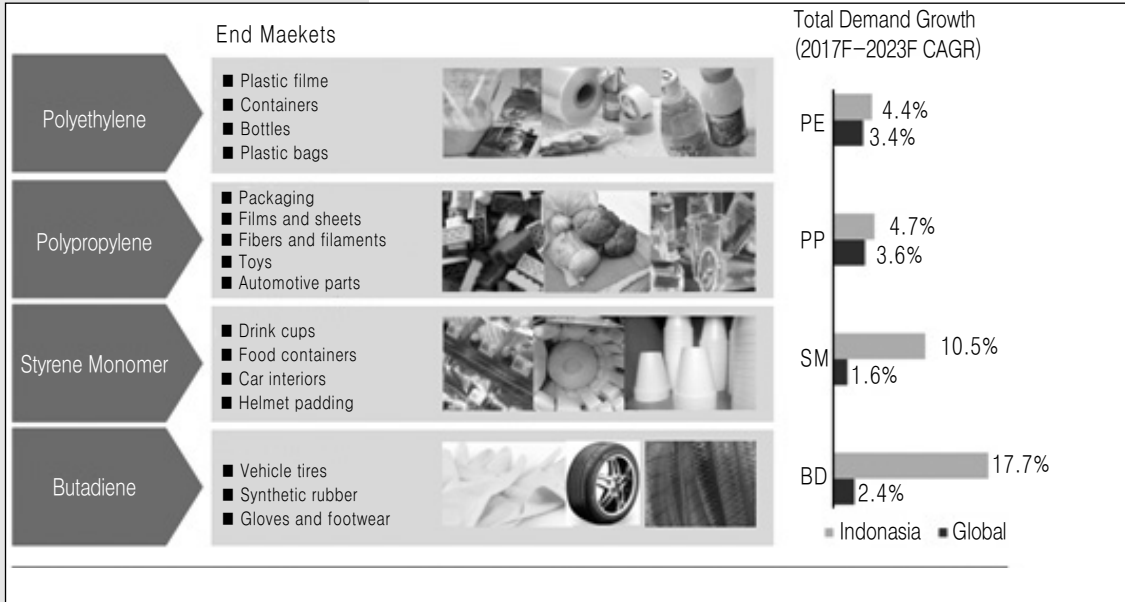


[자료원 : 유로모니터]

주 1 : 2018년 7월 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 환율, 1달러=14,322루피아

주2 : 2018년은 추정치

[그림 3] 석유화학제품의 용도 및 수요 증가전망치



[자료원 :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Tbk]

130억 5,146만 루피아)로 추정했다.

한편 플라스틱 판, 시트, 튜브 등 HS 코드 391990과 관련되는 시장규모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17년의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튜브 시장규모는 18조 1,010억 루피아(약 12억 6,386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9% 성장하였으며, 유로모니터는 2018년 시장규모를 20조 1,820억 루피아(약 14억 916만 달러)로 전망했다.

플라스틱 판, 시트, 포일, 테이

프 등의 제품은 [그림 3]과 같은 분류표에 따라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에서 기인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표 2]와 같이 10개 업체에서 주로 생산하며, 2017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876만 톤이다.

이 중 HS 코드 391990와 관련된 플라스틱 판, 시트, 포일, 테이프 등의 원료가 되는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Tbk, Pertamina, Asahimas Chemical, Sulfindo 등이 있다.

### III. 최근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제품(기타)(HS 코드 391990)의 수입실적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상승과 하락세를 반복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수입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플라스틱 판, 시트, 포일 등의 제품(기타)(HS 코드 391990)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실적은 2억 1,867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19% 증가하였으며, 2018년 1분기 수입실적도 5,601만 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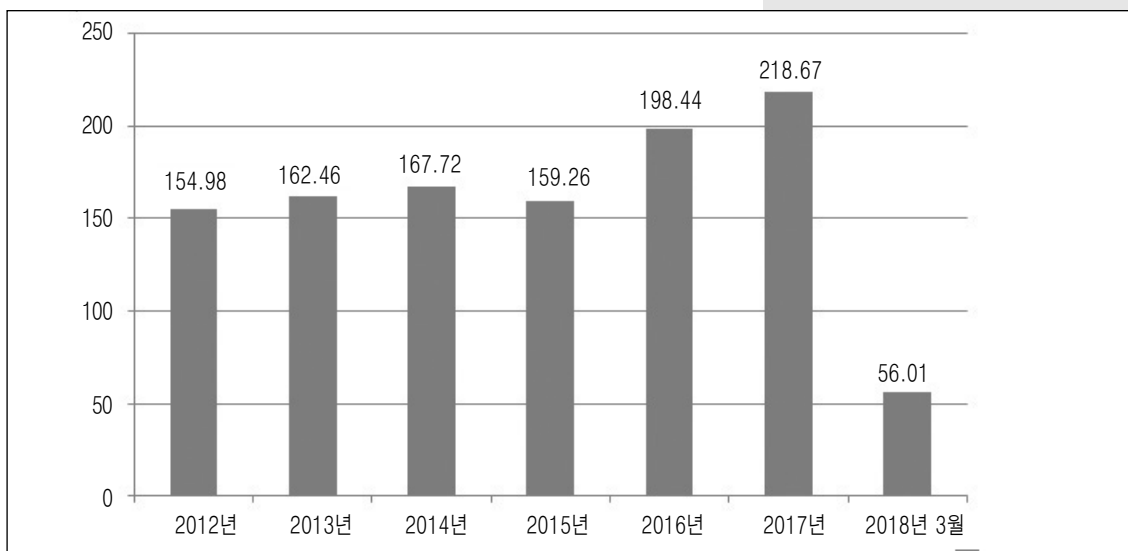
[표 2] 2017년 인도네시아 업체별 석유화학제품 생산규모

(단위 : 천 톤)

제품분류/업체명	Chandra Asri	Lotte Chemical Titan	Pertamina	Polytama	Asahimas Chemical	Sulfindo	Nippon Shokubai	Petro-Oxo Nusantara	Polychem Indonesia	TPPI	총계
Ethylene	860										860
LLDPE	200	200									400
HDPE	136	250									386
Polypropylene	480		45	240							765
Styrene Monomer	340										340
Ethylene Dichloride					644	370					1,014
Vinyl Chloride Monomer					734	130					864
Polyvinyl Chloride					507	95					602
Ethylene Oxide									220		220
Ethylene Glycol	470		608						216		216
Propylene							140	20			1,078
Acrylic Acid								100			140
Butanol											20
Ethylhexanol											100
Py-gas	400										400
Crude C4	315										315
Benzene										400	400
ParaXylene										540	540
Butadiene	100							120			100
총 생산량	3,30	450	653	240	1,885	595	140		436	940	8,760

[자료원 :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Tbk]

[그림 4]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시트, 필름(기타) (HS 코드 391990) 수입규모 및 동향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표 3] 인도네시아의 상위 10개국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HS 코드 391990) 수입규모 및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월
1	중국	21.83	23.42	28.01	28.08	44.15	51.43	13.6
2	말레이시아	29.84	34.4	45.76	39.96	41.96	44.65	10.82
3	일본	20.16	17.72	20.25	19.45	25.37	21.57	5.83
4	태국	11.92	14.21	10.71	14.3	11.83	13.15	5.57
5	싱가포르	12.41	7.32	11.44	12.85	14.02	17.44	4.5
6	미국	12.45	11.95	6.97	11.81	16.68	17.89	4.12
7	대만	12.24	14.18	11.83	12.95	15.64	15.61	3.72
8	한국	14.93	16.4	14.89	6.88	5.61	7.26	2.45
9	독일	2.77	4.03	3.18	3.21	4.44	6.23	2.18
10	홍콩	3.49	4.35	3.69	1.95	5.25	4	0.71
총계		142.04	147.98	156.73	151.44	184.95	199.23	53.5
10대 국가 시장점유율		91.65%	91.09%	93.45%	95.09%	93.20%	91.11%	9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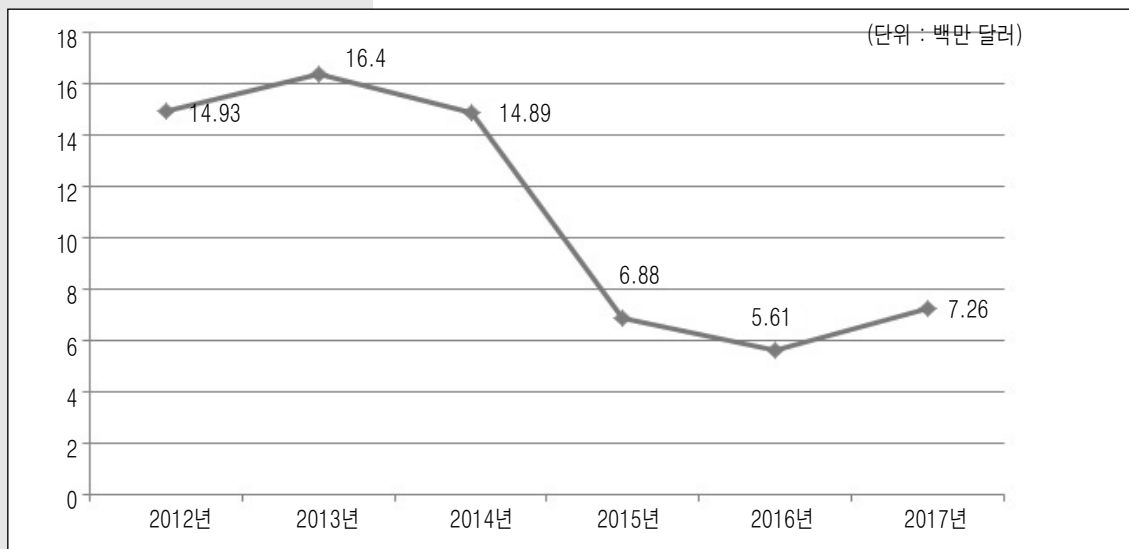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연간 수입실적은 2017년의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기타) (HS 코드 391990)의 수입시장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중

국산 제품이며, 전체 수입실적 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중국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미국, 대만, 한국, 독일, 홍콩산 제품이 인

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입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수입규모는 5,350만 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95.52%를 차지했다.

[그림 5]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기타)(HS 코드 391990) 수입규모 및 동향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표 4]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주요 경쟁 기업 동향 및 관련 정보

기업명	기업정보	주요 제품 및 로고 이미지
PT Asia Plast Industries Tb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92</li> <li>○ 취급제품 : 플라스틱 원재료 및 플라스틱 판, 필름, 포일 등</li> <li>○ 생산공장 개수 : 5개</li> <li>○ 순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 3,472억 1천만 루피아</li> <li>- 2017년 : 3,822억 4천만 루피아</li> </ul> </li> <li>○ 총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 609억 9천만 루피아</li> <li>- 2017년 : 551억 2천만 루피아</li> </ul> </li> <li>○ 웹사이트 : <a href="https://asiaplast.co.id">https://asiaplast.co.id</a></li> </ul>	
PT Bhineka Tatamulya Indust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92</li> <li>- 생산은 1994년부터 시작</li> <li>- 2014년 이후 연간 생산량 : 60,000톤</li> <li>- 주요 생산품목 : 플라스틱 판</li> <li>- 주 수출국 :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일본, 대만, 스페인, 미국</li> <li>○ 웹사이트 : <a href="https://ptbhineka.com">https://ptbhineka.com</a></li> </ul>	
PT KOLON 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95</li>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오롱산업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기업</li> <li>- 'Astrol'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기업은 플라스틱 시트 생산</li> </ul> </li> <li>○ 웹사이트 : <a href="http://kolonina.com">http://kolonina.com</a></li> </ul>	
PT Tekpak Indone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96</li> <li>○ 주요 제품 : 캐스트 파켓트 스트레치 필름</li> <li>○ 웹사이트 : <a href="http://www.pt-tekpak.com">http://www.pt-tekpak.com</a></li> </ul>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 IV. 대한수입규모 및 동향

대한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7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대한수입규모가 최초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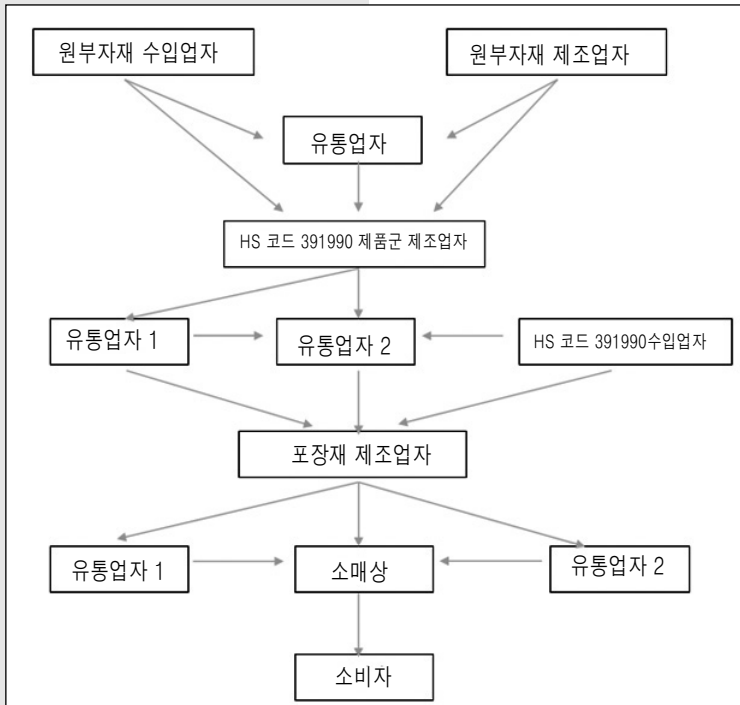
를 보였다.

우리 기업의 2017년 대인니 수출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1,64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예전보다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에 대한 수요는 주요 수입국가에 비해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약 150개 내외의 한국의 중소 및 중견기

[그림 6]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제품의 유통구조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조사]

주 1) 포장재 제조업자는 상품의 필요에 따라 거치거나 생략될 수 있음.

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며 대기업 비중이 적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업종은 석유화학뿐 아니라 전기전자업체, 일반기계, 상사, 섬유 등 다양하다.

## V.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을 취급하는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없으나, 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주요 경쟁사는 PT Titan Kimia Nusantara Tbk, PT Trias

Sentosa Tbk,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PT Berlina Tbk, PT Dynaplast Tbk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원료 생산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기준 각각 약 2.8%, 1.0%, 0.7%, 0.6%, 0.5% 등이다.

또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을 취급하는 주요 업체에는 PT Asia Plast Industries Tbk, PT Bhineka Tatamulya Industri, PT KOLON INA, PT Tekpak Indonesia 등이 있으

며, 기업정보 및 주요 제품, 로고 이미지는 다음과 같음.

## VI. 유통구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제품의 유통구조는 원부자재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유통업자를 거친 후, 유통업자는 HS 코드 391990 제품군 제조업자로 원부자재가 유통된다. 이후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제조업체는 제품을 제조한 후 유통업자에게 납품하고, 유통업자는 제조사뿐 아니라 해당 제품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소매상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통과정에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제품 중에서도 제품에 따라 포장재 제조업자를 거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셀룰로오스판지, 포장재 등의 경우, 포장재 제조업자를 거치나 테이프, 일반 플라스틱판 지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VII. 관세율(일반 관세율, 한국산 제품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등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플라

[표 5] 관세율(일반 관세율, 한국산 제품 관세율)

HS Code	수입규제	관련 규정	수입 관세		
			MFN	AKFTA	ACFTA
3919.90.10	수입규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10%	5%	0%
3919.90.20	수입규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10%	5%	0%
3919.90.91	수입규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10%	5%	0%
3919.90.92	수입규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10%	5%	0%
3919.90.99	수입규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10%	5%	0%

[자료원 : 인도네시아재무부, 대한민국관세청]  
 주)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최대 수입국

스틱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HS Code별로 특정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위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별도의 인증이나 수입 쿼터는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입면허 (Angka Pengenal Importir, 이하 API) 를 보유해야 한다.

### VIII. 결론

플라스틱 판, 포일, 필름, 시트, 테이프 등의 제품은 민간뿐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두루 쓰이는 제품군으로,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달 및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군이다. 현재 특정한 수입규제는 없어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이 제품의 수입규모는 내수시장

에 피해를 입힐 만큼 큰 규모가 아니어서 당분간은 수입규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플라스틱 판, 포일, 필름, 시트, 테이프 등의 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나 대 인도네시아의 주 수입국에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바, 주요 제품의 구매결정요인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도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실적은 상위 10위안에 들어가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분기 현재 4.37%으로 적다.

그럼에도 식음료산업 발달에 따른 플라스틱 소재 포장재의 수요 증가, 인프라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건설현장 수요 증가, 전기전자 제품의 부품 수요 증

가 등에 따라 HS 코드 391990 제품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한국산 제품의 대인니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니 산업부는 현재 내수시장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보다는 현지 진출을 통한 생산방식이 좀 더 정부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며 “HS 391990 제품군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기업규모는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통적인 수출 방식이 주된 인니 진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